

크스님 수행한담

땀흘려 몰두하세요



일을 마지못해 하니까 일은 일대로 안되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요

◇96년 5월5일 중국의 보현도량인 하북성 아미산에서 조성된 동양최대(높이 7m, 좌대 4m 규모) 백운불상인 11년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포즈를 취한 금봉스님. 30여년간 울력을 계속해 온 스님은 80세의 노후에도 불구, 관음전·지정전 불사에 원력을 쏟고 있다.

않고 울력을 했습니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한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며 추위와 더위를 잊고 불사에만 매달린 거예요. 그러다보니 일 자체가 수행이 되어 갔어요. 아직 몸도 건강하고 아픈 줄을 모릅니다. 처음 불사를 시작할 때는 산이 가파르

자체가 바로 공부입니다. 그러나 울력을 할라치면 공부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망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순수한 생각이 있으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몰두해 버립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은 바로 공부 따로 하고, 일 따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온 마음이 일 속에

때로 꿈을 꾸면 좋은 절을 짓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마 전생에도 절 많이 지은 스님이었던가 봐요. 불사를 하는 것은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수행과도 같은 것인 거 같습니다. 심전(心田)농사나 보리 심고 벼 심는 논밭농사나 똑같은 것이죠. 무지선 무치선(無時禪 無處禪)이기에 언제나 참선하는 경지에 이르도록 방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백장 회해(百丈 懷海: 749-814) 스님의 일화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백장스님은 마조스님의 '평상심이 도이니 움직이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두 선을 닦아야 한다'는 사상을 발전시켜 참선을 노동이란 실천에 적용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제도를 실천한 것이기도.

백장스님은 90세의 고령에 이르러서도 제자들과 함께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대중들은 그가 힘들어 하는 것을 차마

전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불교 탄압에도 오직 선종만은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욱 발전할 수 있었지요. 이 모든 공로는 백장 선사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백장선사는 이처럼 선인들의 공양에 의지하던 제도를 혁파하여 선원의 상하가 모두 힘을 합쳐 일제히 노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조스님이 총림을 창건한 이후에 백장스님은 대·소승의 계율을 절충하여 선원의 청규(淸規)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백장 청규>입니다. 백장 스님 스스로가 먼저 앞장서 일을 열심히 해 실제 생활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생활도 간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편안하게 살고만 하는 스님들이 많아진 것은 이런 전통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노스님들은 낡아 떨어진 가사를 직접 기워입고 빨래도 손수 하셨습니다. 신도들의 공양이 얼마나 무거운 인과와 씨앗인가를 알기 때문에 의식주 생활 하나하나가 수행의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부 스님들은 상(相)을 많이 내고 내태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심은 크게 했겠지만 의식주에 이끌려 발심의 싹이 없어집니다. 초발심은 끝도 어려운데,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가야 합니다.

일반 불자들이 시민들도 인과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인과를 모르고 멸시하는 사람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탐·진·치 3독 무거운 것입니다. '인과에 어둠지 않다(不昧因果)'라는 가르침에 여우의 몸을 벗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옛날 어느 선사가 "대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질까"라는 질문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고 잘못 대답해 5백년간 여우의 몸을 받았다가, 백장스님의 "인과에 어둠지 않다(不昧因果)"라는 가르침에 여우의 몸을 벗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흔히 말세 증생들은 총명은 하지만 지혜가 없어 깊은 성취를 이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이란 불자는 참선·염불·독경이든 근기에 맞게 한 가지를 갖고 꾸준히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대도를 성취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대도는 문이 없건만(大道無門) 길은 천차만별이라(千差有路), 능히 이 빛장을 열면(能得此關)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서리라(乾坤獨步).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준

(건국대 교수·교불련 회장)

나는 어린 시절 먼 시골 아름다운 농촌에서 자랐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우리 마을은 종교의 무종교시대였다.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면 유교적 규범과 풍토가 생활 속에 넘쳐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잡다한 종교들이 난립되어 서로 각축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노라면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림자 그 하다.

그 뒤 나는 도회지로 나와 종교등학교를 다니며 기독교를 믿는 동료들의 성화로 그들을 따라 교회나 성당에도 가 봤고, 교회들 간의 갈등도 볼 수 있었다. 교회 속에서 나는 종교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는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의지하는 지팡이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린 마음에 홀로 살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다고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종교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멀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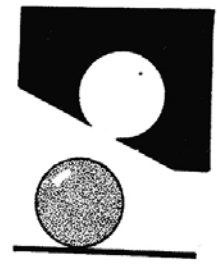
중의 성인이다." 또는 "불법은 천하의 도(道)라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가 있다."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의 마음을 크게 울려 그 수련이 오히려 내가 불교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인연이 닿는 대로 불교 공부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내가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것은 불교사 통신 강원 교양반에 입학하여 테이프를 통하여 월운 스님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때 내 나이 47세였으니 비유하면 매우 늦깎이인 셈이다. 나는 거기서 교양반을 마치고 다시 사교과(四敎科)를 수료하였다. 또한 삼일선원에서 각성스님을 모시고 남일경을 공부하였고, 1987년에 불교를 공부하는 교수들 모임인 불교 교수 협회가 세워지면서 이영무 스님을 모시고 원효사상을, 원의법 선생님을 모

47살 불교입문...늦은만큼 신행 더 열심

"불교학생회 지도하며 오히려 배워요"

내가 종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그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거친 세상의 차가운 모래바람 속에 살다 보니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등 인생의 궁극적인



시고 인도 철학에 오고 갔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불교에 대하여 아는 바가 너무 적다. 어디서든 불교에 대하여 토론을 하거나 담론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이 항상 새롭게 느껴지고, 할 말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종교를 찾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교회들을 다니며 대화를 나눠 보았다. 그러나 신의 구원에 기반한 신심과 봉사 정신은 높이 평가할 수 있어도 교리가 역설적이며 공격적이라고 할 만큼 배타적인 선교 방식이 너무 거부감을 주어서 더 이상 가까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한 친구가 원불교 종로 교당 교무로 오게 되어 그의 권유로 4박 5일 원불교 수련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 수련을 통하여 나는 원불교가 현대인이 접근하기 쉬운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원불교의 대중경을 보다가 교주인 소태산 대중사가 금강경을 보고 "석가모니불은 진실로 성인들

도 별로 없다. 불법이 항하(恒河)의 모래와 같은 내 나의 불교 지식은 모래알 몇 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겨지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나의 수행이 부족해서 불법의 진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탄하곤 한다. 그런데도 무슨 인연인지 그동안 포교사의 서포도 받았고, 건국대학교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로 또는 지도법사로 오랫동안 일해 왔으며, 문화예술인법회의 회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막중한 자리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내가 벌어들인 빚갚음이라고 할까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파다.

나에게는 언젠개 현실을 모두 탈탈 털어버리고 불법만을 공부하여 참다운 불자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마음밭 농사나 논밭 농사 다 같아요" 인과 모르고 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고 길이 없어 어떻게 밭담을 지었지요. 대들보 하나 세우는데 보름, 기둥 하나 세우는데 7일이 걸릴 정도였어요. 75년엔 절 주변에 수만 그루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어요. 잣나무를 잘 길러 불사 기금으로 써야겠다는 마음이었죠. 이제 나무들이 잘 자라고 간벌을 하면 서까래용 재목들이 나오요. 때로는 나무들이 자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일을 하다보면 자기 공부하는 것이 성급해지는 것 같고, 공부에 집중하면 일이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공부가 본심 무엇을 하는 거냐. 안다면, 불만이나 불안감 없이 일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과 공부는 둘이 아니에요. 근본 마음이 순일(純一)하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원(願)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일체의 행동, 그

뛰어올 때 내가 될 하나 완성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의 근본은 하나로 돌아감을 보여줍니다.

육조 혜능스님이 여덟달 동안 방아를 짚은 것도 단순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우주가 둘이 아니고 방아짚는 덩어리, 전체 즉 완전한 자기 인생인 것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망상을 부리며 마지못해 하니까 일은 일대로 안되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피로를 쉽게 느끼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일을 하면서도 온갖 것이 그대로 다 공부가 됩니다.

처음 범륜사를 짓는 동기는 고아원과 강원을 짓고 40-50명의 학인들을 키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 때 비구니강원을 만들어 5년간 운영한 적도 있지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 불사를 좀더 잘해서 훌륭한 강원을 만들 생각입니다.

보지 못해 선사가 사용하는 호미와 망태기를 감추어버렸습니다. 백장스님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자 단식으로 항의했습니다. 3일동안 일을 나가지 못하자 스님은 3일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다.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농구를 내놓을 수 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백장 스님은 다시 흥겹게 대중들과 함께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은 선원의 정신이 되었으며, 백장 선사는 총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당나라 무종 때에 이르러 사원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국가경제와 모순관계를 이루자 최후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심한 법난이 일어났습니다. 4만여 개의 사원이 철거되었으며, 20여만명의 승려들이 핍박을 받아 환속하였고 사원의

2천만의 깨달음을... 현대 불교 지사·지극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 호. 지상중계 혜가 스님과 떠나는 불교전리담구,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선」을 교재로 좌선의 의미와 참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불교계진단, 불교계 승·제가 인재양성본사의 현주소, 혼히 말하는 불교의 인물부재, 절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제가의 인재양성본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99건국문화의 해 특집, 우리 옛 절의 건축세형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흐름이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절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부석사의 건축세형. 문화시평 / 불교교리의 현대적 해석, 연서니 기근스의 제3의 길 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제3의 길과 불교의 中道.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만민신앙, 미륵,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위안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용하는 법.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승: 02-719-5052, 서울시 대표: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솔바람 수필집. 은월스님의 세상사는 지혜. 佛國의 아침을 여는 풍경소리. 백운일 / 총 / 종교·불교 / 값7,000원 / 신국판. 백운일 스님이 가슴으로만 품어왔던 불당어들이 밤낮으로 삼고 삼아 오색 빛 영롱한 비단실로 뽀아 올린 주옥같은 법문집! "노을도 봄과 여름에 나타나는 빛과 가을에 나타나는 빛이 다르다. 가을의 노을은 낙엽색이 되어 마지못해 빛을 던진다. 그 노을에 의해 낙엽의 색이 물드는 것인듯, 아니면 낙엽의 빛이 노을을 물들게 하는 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낙엽빛 노을이나 노을빛 낙엽을 보노라면 한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본문중에서) 도서출판 솔바람 TEL: 02) 720-0824 FAX: 02) 722-8760